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국어 독서 2

# 서성수 국어 독서2

---

## 서론 독해(RED)

'충분한 시간 사용'과 '높은 집중력'으로

2가지 MISSION을 완수하자

### 1. 서론 독해의 2가지 미션(RED)

#### ① 개념간의 복잡한 관계는 이해하고 넘어가기

: 서론은 글의 도입부로 본론과 결론에 나오는 다양한 개념들이 동시에 등장한다. 서론은 이 개념들을 사용해 만든 불완전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술된 불완전한 설명들은 본론과 결론에서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되며 본론과 결론에서는 서론의 내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하든 중요한 건 글은 서론의 개념과 설명을 바탕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글의 핵심인 본론과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론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념들을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서론에서 등장한 개념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립 관계와 포함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개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복잡한 개념간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용어 개념의 정의!

개념 간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비교 대조!

개념 간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상관 관계! 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론에서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가 등장한다면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그 부분에 집중력을 높여 바로 한 번 더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개념의 의미나 관계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시간을 써서 글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 서성수 국어 독서2

---

## CF)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 간단하게 보기

'정의는 용어와 개념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인가가 설명되었다고 느껴지면 정의로 보자

주로 "이란, 란, ~인, 정의된다, 는, 은" 을 통해 정의임을 알 수 있다

계속 해서 반복되는 정의의 경우에는 특히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을 읽고 이해한 뒤 넘어가자. (정의에 밀줄)

'비교 대조는 용어와 개념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용어와 개념을 설명한다.

주로 "만, 달리, 비해, 이와 달리, 반면, 하지만, 구별된다" 을 통해 비교 대조임을 알 수 있다.

비교 대조에서는 꼭 이 기준점을 기억해주자.

비교 대조가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특히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을 읽고 넘어가자(기준점에 세모& X/Y 표시)

'상관 관계는 용어와 개념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용어와 개념을 설명한다.

주로 "A= B+C, A= B/C, A가 증가하면 B가 감소한다"을 통해 상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상관 관계에서는 '수식'이 주로 등장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자

서론에서 나온 상관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복잡한 수식 등이 나오는 경제나 과학 지문에서 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상관 관계라고 느껴지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주고 넘어가자(변수간의 관계를 화살표를 통해 정리 EX/공정한 상황에서 보험료는(↑) 보험금에 사고 발생확률(↑)을 곱한 값과 같아야 한다.)

## ②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꾸기

: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말은 쉽게 자신의 말로 바꿔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자신의 말로 바꾸어 보는 과정은 어려운 개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서성수 국어 독서2

---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정리한 정의에 집중하는 것!

상관관계에 집중하는 것!

비교 대조에 집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방법이라면

어려운 말을 쉽게 자신의 말로 바꿔가면서 읽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기준점은 없어요.

그저 글을 읽다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말로 바꿔주면 됩니다.

EX1/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관찰, 외부 세계와의 감각적 접촉과 인식 등)**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EX2/

권위 개념이 **전제하는(보여주는, 내세우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가 합리성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와는 **결코 화해할 수 없기 때문에(다르기)** 권위에 따르면서 합리적인 것이란 마치 둥근 사각형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쉽게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에 대한 쉬운 표현은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EX/

모순된다. 상충된다. 조화되지 못한다. 비정합적이다. 화해하지 못한다- 다르디

# 서성수 국어 독서2

---

정도의 차이이다. 정합적이다. 화해할 수 있다. 모순되지 않는다. 상충되지 않는다- 유사하다  
경험- "이 커피는 갈색이다." 감각적 경험이 기본이 되며 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CF/ 서론에서의 예측 독해

강의를 듣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예측 독해입니다.

서론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에 나올 내용들을 예측하는 독해법 이에요.

서론을 읽은 후에 뒤에 무엇이 나올지 예측해서 읽다 보면

글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글을 장악하는 독해도 가능해져요.

방법은 글의 완결성에 집중해

서론에서 드러나는 불충분한 설명을 느끼고

뒤에서 불충분한 설명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예측하면 됩니다.

질문을 했으면 답을/ 문제를 제기했으면 해결책을/ 비교 대조 구문에서 X를 이야기 했으면 Y를  
개념어나 형용사를 제시했으면 설명을/ 서론에서 3가지를 화제를 던졌으면 본론에서도 3가지를  
예측하는 것이 대표적이예요.

완결성이라는 간단한 원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측 독해의 문제는 집착에 있어요.

이 예측 독해에 빠져 성급하게 글의 구조를 찾으려 하다 보니

세부정보도 많이 놓치고 스스로 정해놓은 구조에 맞춰 오독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선 이 예측 독해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활용합니다.

# 서성수 국어 독서2

각 서론에서 2가지 미션을 달성하자.

1.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목적: 서론에서 글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 즉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한다.

## Mission1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에 집중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정의

## Mission2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꾸기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 CF) 재화와 서비스란?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경제활동에서 이용 되는 것이다. 재화나 서비스 모두 인간의 생활에 효용을 주는 것인데 형태가 있는 것을 재화 형태가 없는 것을 서비스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재화는 책 서비스는 강의로 이해할 수 있다.

## PLUS 예측해보기

나와 있는 개념과 설명 중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본론과 결론에서 충분히 설명된다.

여기서는 '같은 위험'이라는 형용사와 개념어가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뒤에서는 '같은 위험'을 중심으로 설명이 제시될 수 있다.

2.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 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 Mission1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에 집중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 비교 대조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 정의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 서성수 국어 독서2

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정의

## Mission2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꾸기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감각이나 관찰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감각이나 관찰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 CF) 경험이란?

경험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다. 이 접촉은 기본적으로 감각적이다.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이런 감각적인 접촉에 머릿속에 있는 공간과 시간 등에 관한 선험적인 개념이 달라붙는 것이다. 분필을 '보고' 그 감각적 경험에 색 등의 다양한 개념이 달라붙어 '희고 딱딱한 분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CF) 이해하고 넘어가기

'수학&논리 VS 과학적 지식

'가설(과학적 지식의 후보) → 예측

이 예측을 검증해 가설의 참 거짓을 확인

3.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 Mission1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에 집중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정의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 비교 대조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 반면 셀룰로스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함/ 비교 대조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비교 대조

## Mission2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꾸기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

'사람은 몸 안에서 만든 효소를 이용해서 곡류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바꾸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함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 서성수 국어 독서2

## CF) 이해 하고 넘어가기

섬유소 VS 비섬유소

인간-효소O/ 비섬유소 → 포도당O

효소X/ 섬유소 → 포도당X

반추 동물-효소X

BUT 섬유소& 비섬유소 → 포도당(에너지원)

4.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돔 지붕이 지름 45 m 남짓의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 m가 넘는 원형의 천창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 Mission1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에 집중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상관 관계

### Mission2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꾸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 PLUS 예측해보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가 없다.

형용사와 개념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다양하다는 것의 구체적인 예시와 내용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될 것이다.

5.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증기 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

### Mission1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에 집중

칼로릭은 열의 실체/ 정의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정의

### Mission2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꾸기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

‘열의 기초와 근원에인 칼로릭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 서성수 국어 독서2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

‘열의 기초이자 열을 구성하는 단위 같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 이동하면서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진다

## CF)실제란?

실체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초이자 근원이다. 존재들의 외적인 모습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 반해 실체 그 자체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 PLUS 예측해보기

증기 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에서 열기관과 열효율이라는 개념어는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뒤에서는 열의 기초, 질량이 없는 물질,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이동하는 칼로릭을 바탕으로 열기관 열효율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6.**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 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빛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 Misson1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에 집중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정의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 정의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을 사단(社團)/정의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정의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정의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 서성수 국어 독서2

‘법인이 아닌 사단’ /비교 대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비교 대조

## Mission2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꾸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돈 등을 내놓으라는 권리도 가질 수 있고 돈 등을 갚아야 하는 의무도 질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모여 만든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인 존재로 쉽게 변치 않고 존재하여

## CF) 이해해보기

개인: 태어남→ 권리능력

단체: 독립적 실체(사단)+ 법인 등록→ 법인격

사단 법인(사단+ 법인= 법인격) VS 법인이 아닌 사단(사단+ 법인X= 법인격X)

**7.**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 신경망 기술이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 Mission1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에 집중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 신경망 기술/정의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정의

## Mission2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꾸기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인간의 신경 조직이라는 복잡한 대상을 쉽게 수학적 형식으로 표현하여

## CF)모델링이란?

모델링은 어떤 물리현상을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수학적 모델은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목적으로 복잡한 현실은 수학적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CF) 이해해보기

인간의 신경조직- 기억 학습 판단/뉴런

↓(수학적 모델링)

인공신경망 기술-기억 학습 판단/퍼셉트론

## PLUS 예측해보기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개념어를 제시했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뉴런을 어떻게 모델링해 퍼셉트론이 나왔는지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뒤에서는 퍼셉트론이 만들어진 모델링 즉 형식과 과정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될 것이다.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 서성수 국어 독서2

---